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 개최

화이트데이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 14일 오후 3시 개막

전남 구례군은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 까지 9일간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화이트데이와 연계한 감성 테마를 강화했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하트 모양 메모판에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도록 '빛과 사랑의 터널(천년의 약속)'을 조성했다. 산수유꽃이 지닌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한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열매가끼 대회를 비롯해 산수유 골든벨, 산수유 떡볶이 체험, 산수유차 무료 시음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 어린이를 위한 산수유 캐리커처링·드림캐쳐 만들기, 편버튼 만들기 체험도 새롭게 확대 운영



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식 일정은 3월 14일 오전 10시 산수유 시목지에서 풍년기원제로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주 행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손태진, 일러븐, 현진우, 이정옥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축제 기간에는 사랑·설렘·산수유를 키워드로 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고, 국가 무형문화유산 농악 한마당과 음·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무대에 오른다. 구례/한정호 기자

고흥군 고흥물, 봄맞이 제철전 '봄이 왔나봄? 장바구니도 왔나봄!' 진행 3월 3일~15일, 오이·시금치·봄동·주꾸미 등 최대 50% 할인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몰'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봄맞이 특별 기획전 '봄이 왔나봄? 장바구니도 왔나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제철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이, 시금치, 봄동, 주꾸미 등 봄철 대표 식재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와 신선한 시금치, 달큰한 맛이 특징인 봄동은 겨우내 떨어진 맛을 돋우는 대표 봄 채소로 꼽힌다. 특히 산란기를 앞두고 삶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주꾸미는 쫄깃한 식감과 깊은 감칠맛을 자랑해 봄철 별미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고흥몰은 산지 직송 체계를 기반으



로 수확·어획 직후 신선한 상태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 농어가와의 직거래 구조를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상생형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고흥몰 관계자는 "봄 제철 식재료는 영양과 맛이 가장 뛰어난 시기"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이 고흥의 신선한 먹거리를 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귀농·귀촌 가족, 월 1만원으로 영암에서 2년간 산다

3월 10일까지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입주 3세대 모집

영암군이 10일까지 월 1만원 임대료로 최대 2년 동안 영암에서 귀농·귀촌을 경험할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1차 입주 3세대를 모집한다. 영암살래는 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경제적 임대료로 제

공해 생활 체험으로 정착 가능성을 넓히게 만드는 프로그램. 특히, 보증금 120만원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으로 저렴해 귀농·귀촌 가구가 비용 부담 없이 지역에서 정착할 길을 열었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3채는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에 각각 자리해, 모두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세대원 전원일 영암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이다.

영암군은 전입 예정 인원과 향후 경제 활동 가능성,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암살래 오픈하우스'를 운영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살래는 체험을 넘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지원 사업이다. 농

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전국 도시민들이 영암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주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전남형 새뜰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5, 2556)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카메라 뉴스



진도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피난로 확보 현장지도 점검

진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놀이시설, 실내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로 확보 현장지도 점검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문화·여가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만큼,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아리랑 시네마, 진도향토문화회관, 국립남도국악원 등을 방문해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확인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홍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대상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초기 대응요령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지역자활센터, 무안신협 차량 기탁식 개최

무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미정)는 지난 3일 무안신협으로부터 1톤 탐차를 후원받아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기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사업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지역자활센터와 무안신협은 2025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의를 거쳐 차량 후원을 추진했다. 전양태 무안신협 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민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정 무안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근로 참여 주민의 이동 편의와 사업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함평경찰, 신학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남 함평경찰서(서장 권춘석)는 4일 신학기를 맞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함평경찰청은 함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함평초등학교 및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등 25명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육물품을 배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함평경찰서(서장 권춘석)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도박 등 다양한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전광환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